

이과 수학·과탐 급감... 2027 수능 선택 지형 '대변화'

종로학원, 3월 학력평가 분석
확률과통계·사회탐구 증가세
합격선·수능최저 예측 '난항'

<고3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 응시 현황>

/종로학원

과목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전년대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증감률
미적분	115,765	33.6%	117,397	39.1%	133,116	43.4%	139,784	43.8%	134,133	38.4%	97,822	29.4%	-36,311	-27.1%
기하	20,027	5.8%	12,403	4.1%	8,131	2.7%	7,334	2.3%	7,118	2.0%	7,056	2.1%	-62	-0.9%
소계	135,792	39.5%	129,800	43.2%	141,247	46.1%	147,118	46.1%	141,251	40.5%	104,878	31.6%	-36,373	-25.8%
확률과 통계	208,260	60.5%	170,622	56.8%	165,146	53.9%	171,761	53.9%	207,722	59.5%	227,444	68.4%	19,722	9.5%

2027학년도 3월 학력평가에서 이과 수학과 과탐 응시 비중이 통합수능 도입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선택 구조가 크게 바뀌면서 합격선 및 수능최저 예측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2일 종로학원이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지난 달 24일 시행된 2027학년도 고3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응시자 33만4663명) 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적분·기하 등 이과 수학 응시 인원은 10만4878명으로 전년 14만1251명보다 3만6373명, 25.8% 감소했다.

미적분은 13만4133명에서 9만7822명으로 27.1% 줄었고 기하는 7118명에서 7056명으로 0.9% 감소했다. 반면 확률과 통계는 20만7722명에서 22만7444

명으로 9.5% 증가하며 수험생 풀림 현상이 뚜렷해졌다. 미적분과 기하는 주로 자연계열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이과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인 반면, 확률과 통계는 인문계열 중심으로 선택되는 과목이다. 최근 자연계 학과에서도 확률과 통계와 사탐을 허용하는 대학이 늘면서, 문·이과 경계가 완화되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비율로 보면 변화는 더 크다. 미적분·기하 응시 비중은 전체 수학 응시자의 31.6%로 2022학년도(39.5%) 통합

수능 도입 이후 최저치다. 반대로 확률과 통계 비중은 68.4%로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탐과 탐구 감소세는 더욱 가파르다. 과탐 1과목 4개 합산 응시 인원은 15만9866명으로 전년 24만6557명 대비 8만6691명, 35.2% 급감했다. 이는 통합수능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생명과학I 37.6% ▲지구과학I 33.5% ▲물리학I 33.8% ▲화학I 34.2% 각각 감소했다. 특히 화학I은 2022학년도 6만4431명에서 2027학년도

1만8508명까지 줄며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사회탐구는 증가세를 보였다. 사탐 9개 과목 합산 응시 인원은 50만3401명으로 전년보다 5만3933명, 12.0% 늘었고, 탐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75.9%로 통합수능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수학과 탐구 선택 과목 간 응시 인원이 크게 재편되면서 입시 예측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수학은 선택과목별 점수 산출 구조상 단순한 유

불리 판단이 쉽지 않고, 탐구는 응시 인원 변화가 등급 인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여서 과탐 선택 수험생의 수능최저 충족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7학년도에는 현행 통합수능 마지막 해로 ▲N수생 유입 확대 ▲자연계 학과의 확률과 통계·사탐 허용 확대 ▲무전공 선발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문·이과 경계가 더욱 흐려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위권과 중위권 모두 과목 선택과 지원 전략을 둘러싼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수학과 탐구에서 응시 인원 변화가 매우 큰 상황에서 통계적 우월리만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본인의 적성, 학습 부담, 준비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고1·2 맞춤형 상담으로 진로 설계 돕는다

서울시교육청, 3단계 통합 지원 추진
사교육 의존 줄이고 정보 격차 해소



서울시교육청 용산 신청사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서울 학생 진로·진학 지원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고1·2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로·진학·학업 설계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료 보급부터 교사 역량 강화, 학생·학부모 대상 1대 1 맞춤 상담까지 이어지는 '3단계 통합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시교육청은 앞서 해당 종합계획을 통해 사교육 의존을 줄이고 공교육 중심의 상시형 진로·진학 지원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방침을 학교 현장에 구체화하는 후속 사업이다.

우선 학생과 교사를 위한 '진로·진학·학업 설계 지원 자료집' 2종을 개발

해 보급한다. 자료집은 오는 30일 이후 서울 관내 일반고에 배포되며,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에도 탑재될 예정이다.

교사 대상 지원도 병행한다. 교육연구정보원은 고등학교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진로·진학·학업 설계 로드맵 설명회'를 4월 30일 서울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연다. 설명회에서는 진로 탐색부터 학업 설계, 진학 지도까지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

공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13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참석하지 못한 교사를 위해 강의 영상은 촬영 후 5월 11일 이후 서울교육 웹TV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

학생·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상담도 마련된다. 교육연구정보원은 고1·2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총 300명 규모의 '집중 진학상담 주간'을 5월 7일부터 13일까지 운영한다. 상담은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문성을 갖춘 현장 교사 100명으로 구성된 서울진로진학학업설계지원단이 학생별 과목 선택과 진로·진학 설계를 40분간 1대1로 지원한다.

상담 예약은 17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공통 가정통신문을 통해 배포되는 링크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파주시, 천원택시 230개 노선으로 확대

주민 이동 패턴 반영... 접근성 높여

파주시가 교통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천원택시' 사업을 확대한다. 노선과 운행 마을을 늘려 이동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시는 2019년 시범 도입 이후 운영해 온 천원택시 사업을 2026년에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버스 운행이 어렵거나 배차 간격이 긴 지역 주민이 1000원으로 주요 거점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운행 범위를 넓혔다. 군내면 조산리와 송촌동, 하지석동 등 3개 마을이 추가되면서 대상 마을은 기존 63곳에서 66곳으로 늘었다. 노선도 확대됐다. 주민 요청이 많았던 행정복지센터와 전통시장 등을 포함해 총 230개 노선이 운영된다. 생활 밀착형으로 확대하

여, 단순 노선 증가에 그치지 않고 주민 이동 패턴을 반영해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고령층과 교통약자가 자주 찾는 거점을 중심으로 동선을 재구성했다.

운행 지역도 조정됐다. 기존 읍면 지역 중심에서 교하동 일부 마을까지 포함해 행정구역상 '동' 지역이지만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운영 방식도 수요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대상 마을을 선정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조례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역 중 교통여건이 열악한 마을을 포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인천시, 2.5조 들여 서북부 교통망 대개편

강화·옹진 지역 교통망 확충

인천광역시 교통 소외지역으로 꼽혀온 서북부 검단과 강화·옹진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총 2조5000억 원 규모의 도로 확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인천 권역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광역 이동 편의성을 높여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줄이며,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다.

먼저 검단 지역에서는 검단양촌IC~봉수대로, 금곡동~대곡동 구간 등 총 16개 도로 사업이 추진된다. 총연장은 40.73km이며, 사업비는 약 1조6137억 원 규모다.

강화·옹진 지역에서도 교통망 확충이 본격화된다. 서해 남부 평화도로와 국지도 84호선 등 총 7개 사업이 추진되며, 개통 시 강화 지역 내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축이 완성될 전망이다. 해당 구간의 총연장은 31.93km, 사업비는 약 9217억 원이다.

또한 옹진 지역에서는 영종과 신도를 연결하는 신도 평화대교와 북도면 광역시도 68호선이 연내 개통을 앞두고 있어, 섬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정주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시는 이번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접근성이 낮았던 강화·옹진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해돋이 / 06:01 | 해질 / 19:05

오늘의 날씨

4월 13일 (월)

음력 : 2월 26일

수도권 날씨

9 ~ 2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이출 지수

연천 7/26

동두천 9/26

가평 6/26

파주 7/26

서울 9/26

양평 8/26

용인 9/25

수원 9/25

인천 8/23

백령도 7/12

평택 7/2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미·이란 첫 종전협상 결렬...미 "핵추구 않겠다 명시적 약속 필요"
▲트럼프, 협상결렬 후 침묵중...SNS에 '이란 해상봉쇄' 기사 올려 /사진 뉴시스

▲호르무즈 경색 장기화 전망...이란 쾌속정·기뢰 여전히 건재
▲'달 탐사' 아르테미스 2호 환영식... "지구서 산다는건 특별한일"

▲中, '국공 회담' 후속 양안 교류조치 발표...라이 대만 총통 압박
▲젤렌스키, 이스탄불서 에르도안과 회담... "안보·에너지 논의"